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기록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10:10
 똑똑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

출처: GODpeople.com

계간 이가페 2015년 봄 · 제381호 · 편집인: 김성국 목사 · 발행: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아가페

2015년 봄

제381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agape

아가페

2015 SPRING 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
 성전건축 황량한 대지/Desolate Land
 다문화공동체 |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초대형 스펙터클 최초의 오페라 엘리아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아가페

시편 24편

-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함께 올 것이라
-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 3 여호와와 함께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2015년 봄





표지사진: 퀸즈장로교회 중국어예배부 찬양모습.
2015년 1월4일 중국어예배부가 설립, 김성국 담임
목사의 다민족선교비전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

- 6 • 지상설교 |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 | 김성국 담임목사
- 10 • 컬럼 |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 정영춘 원로목사
- 12 • 목회컬럼 | 삶이 있는 신앙 | 김성국 목사
- 14 • 성전건축 | 황량한 대지/Desolate Land | 김성국 목사
- 16 • 다문화공동체 |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 천위제 전도사
| 특별예배 리뷰 |
- 20 • 2014 송구영신예배 | 기도와 찬양과 믿음으로 보낼 새해를 기대하며 | 편집부
- 22 • 2015 신년하례예배 |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새해 | 편집부
- 24 • 2015년 제직수련회 | '하늘 문이 열리고' | 편집부
- 29 • 교회설립 41주년 기념예배 |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 | 편집부
| 지혜롭고 기본에 충실한 교회 |
- 32 • 예배위원회 | 은혜와 축복의 예배 | 김원도 장로
- 34 • 장년성경공부위원회 | 제자훈련 및 영성훈련 | 홍승룡 장로
- 37 • 선교위원회 | 2015년 여성교회의 목표 | 정영숙 권사
- 38 • 겸손과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선교회 | 정철호 집사
- 40 • 해외선교위원회 | 선교란 무엇이며 누가 소명의 사람인가요? | 정길표 집사
- 44 • 찬양위원회 | 찬양 레시피 | 정해성 집사
- 46 • 장학위원회 |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자
- 47 • 장학생 엿세이 | 소승우·정희영·심혜성

- 52 • 추천도서 | 그리스도를 본받아 | 김경구 권사
- 53 • 권장화랑 | 사순절 요한계시록 강해
- 56 • 2015년 퀸즈장로교회 사역위원회 조직도
| 교회행사리뷰 |
- 58 • 엘리야 | 초대형 스펙터클 최초의 '오페라 엘리야' | 조나영 집사
- 62 • 성탄축하예배 | 별의 또 다른 이름은 비전 | 채영주 집사
- 64 • 하랑예찬 | 예수님 사랑 나누기 | 강지영 전도사
- 66 • | QPEM | "Reflections from the College Retreat" | Jae Oh
- 69 • "Destiny's Children" | Pastor Brian Min
- 72 • 전도폭발 | 교회는 구조하는 곳을 믿습니다
| 교회학교 |
- 74 • 영아부 | 마음을 미루지 마세요 | 안진우 집사
- 76 • 유아부 | 유아부를 섬기면서 | 이애령 교사
- 78 • 유치부 | 장막터를 넓히는 교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 조승희 교사
- 80 • 유년부 | 한걸음 한걸음 | 부장 김동성
- 82 • 초등부 | 하늘 문이 열리고 | 노준성 교사
- 84 • One Mind, One Heart, One Body | 차평화 전도사
- 87 • 중등부 | 2014년 중등부 겨울 수련회 | 김재원·정예영·김준희
- 91 • Cast Your Burdens on Me | John Song
- 93 • 고등부 | Keeping Balance During Change and Restoration | Emily Im
- 94 • 교육부 교역자 컬럼 |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 조성윤 목사
- 98 • 청년 1부 | 2015년도 청년 연합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 박새롬 청년
- 100 • 청년 2부 | 깨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며 전진합시다 | 이동훈 청년
- 102 • 청년 3부 | 나의 꿈, 하나님의 계획 | 이수규 청년
- 104 • 건강정보 |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염 | 명준모 집사

| 편집인 | 김성국 목사 | 편집위원 | 이근우 장로, 채영주 집사, 정해경 권사, 채현주 집사, 정민영 집사, 정지원 집사, 정해성 집사, 박혜숙 집사, 이규원 집사, 송수진 청년, 윤원상 전도사 | 발행 |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 www.kapcq.org |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

요한계시록 1:1-8



읽을수록 정감이 가는
너무나 따듯한 책

김성국 목사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책이라고도 합니다. 또 지금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멀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는 물론 오늘의 나와 우리 교회와 직접 상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놀라운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결론이라는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지 않습니다. 읽을수록 정감이 가는 너무나 따듯한 책입니다. 주제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1:5, 13, 3:7, 5:5, 7:10, 17, 14:14, 15:3, 19:16, 20:4, 22:16). 그 예수님이 오늘의 나와 교회와 역사를 확실히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한 모든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의 자녀요 백성이요 신부인 교회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 왕의 심판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터이니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왕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신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며 그 전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왕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왕, 예수님의 계시입니다(1절). 계시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절은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절은 더 나아가 “때가 가까움이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표현은 그 계시의 내용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참고 막 1:15). 이 계시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이 계시는 편지의 형태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곱 영의 성령님, 그리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5

절)는 인사말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구절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완전, 충만을 의미하는 일곱이란 숫자가 54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일곱 영을 등불 일곱(4:5),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5:6)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혹독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또 다른 당혹함과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시켜주며 복을 주려는 계시의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의 교회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될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

2. 왕의 사랑

요한계시록은 왕의 사랑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야기는 그 왕의 피로 쓰였고 그 내용은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요(5절) 더 나아가 나라와 제사장(6절), 신부(21:2), 백성(21:3), 그리고 아들(21:7)로 삼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나무와 소년이 등장합니다. 나무는 소년을 사랑합니다. 나무는 그 소년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와서 마음껏 놀도록 하였습니다. 그 소년이 컸을 때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장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되어 장가를 갔을 때 자기의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어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가 삶이 지루하다고 배를 만들어 바다

로 가려고 하자 나무는 자기를 베어 배를 만들도록 해줍니다. 그 소년이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루터기만 남아 있던 나무는 노인이 된 소년이 앉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나무의 소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준 책의 이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왕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 주는 나무입니다. 왕이 그 죽음의 십자가로 보여준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며 장차에도 어김없이 전개될 왕의 아낌없는 사랑이야기,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3. 왕의 귀환

요한계시록은 왕의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장엄합니다(7절).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왕의 귀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왕과 그 왕이 사랑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힌 세력들이 통곡하며 후회할 왕의 귀환, 왕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의 영광스런 재림은 구유위에 갓난아기로 오셨던 초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그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펼쳐질 내용들, 오늘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생생하게 보고 있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내내 흥미진진하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왕의 귀환이라는 한 지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환에 이르는 과정과 그 귀환 이후의 엄청난 장면들도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닫힌 책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진 계시의 책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 예수님의 사랑과 귀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

이 되어 이제 곧 지나갈 현실의 고난과 유희, 그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된 사단의 꾀계와 협박을 넉넉히 이기는 왕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영춘 원로목사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의 제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 승천하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 후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부활하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탄생되었다. 이어서 흠어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성령의 불길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도처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신약시대의 성령강림은 기독교회의 시발점이 되었다. 구약시대는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으나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는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어 교회가 왕성하고 든든하게 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이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는 “God for us”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강생하시어 세상에서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던 때는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시대라면,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God in us”의 시대인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는 신약 교회시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여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감화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지구촌 복음전파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은 성령의 체험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불길이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및 온 교인들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는 데에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 이 성령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지구촌 복음화의 마지막 작업을 하는 이때에 한국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김성국 목사

삶이 있는 신앙

최근에 읽은 책이 영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교협 모임에 갔을 때 어느 분이 건네 준 책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따님이 아버지께 대해 쓴 책입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의 목사님이 다 알뿐 아니라 지금까지 흠모하는 분입니다. 모든 목사가 존경해마지 않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았던 따님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삶에서 보인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로 가득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은 그 책의 부제(副題)를 보는 순간부터 접어들어야 했습니다. 그 부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유로 가족의 일과 자녀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러 상처, 신앙과 괴리(乖離)된 삶의 실상을, 그러나 단지 아버지께 대한 정적(情積)로만 느껴지지 않는 독특한 필체로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읽는 자의 맨 낮을 보는 듯한 불편한 문장들이 적잖이 있지만, 자신도 예수 아홉 살에 목사가 된 분이 아버지께 대한 글로서 가족사(家族史)의 정리를 뛰어넘는 경종(警鐘)을, 이 시대 특히 한국 교회의 모든 아버지,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사(教會史)에 끼친 지대한 신학적(神學的) 영향력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신앙에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까지 또 다시 주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삶에는 신앙이 있어야 하듯이 신앙에도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입에서 “신앙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 아니면 교회 젊은이들의 말에서 “신앙이란 이름 뒤에 감추어진 슬픈 교회사”가 줄지어 쏟아질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신앙,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이 삶으로 확실하게 번역되지 않으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흘릴 눈물의 강은 저 허드슨 강이 감히 맞설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거대한 것입니다.

Desolate Land

A place that has nothing, and is of no use
 A land that our small minds planned
 But, God tells us to bear greater works!
 God tells us to plan more works!
 He tells us to embrace more souls!
 He tells to build our visions at this place
 A vision of the next generation soaring
 A vision of the scattered children returning
 A vision of embracing other nations and worshipping together
 This is our vision, This is my vision!

일어나 건축하자!

황량한 대지

아무것도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곳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계획했던 땅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계획하라 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을 품으라 하십니다!
 이곳에 비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날아오르는 비전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오는 비전
 다른 민족을 품고 함께 예배드리는 비전
 이것은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입니다.

총면적 42,321 Sq.Ft.

(전체 4층+지하)

대예배실 : 40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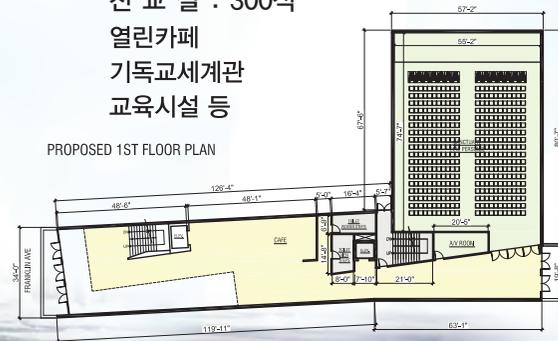
소예배실 : 120석

친 교 실 : 300석

열린카페

기독교세계관

교육시설 등



PROPOSED 1ST FLOOR PLAN





천위제 전도사



中文堂 感謝 中語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亲爱的主内弟兄姐妹们，平安！感谢赞美主，皇后区韩中长老教会的中文部国语堂成立了 哈利路亚！荣耀归于上帝，我们的主耶稣基督。

纽约市是个多元化的都市，聚集了全球上百种不同的族裔 近十年来，华人的移民越来越多，纽约市五个区加长岛的Nassau区和新州的Edison区，就有七十多万华人居住，还未算无身份，未登记的移民 单单在皇后区Queens就有至少二十多万华人居住。而整个皇后区的华人教会只有五十间左右，大部分都是小教会，几十人到两三百人不等；上千人的教会只有一两家 换句话说，在皇后区的这二十几万华人中，绝大部分的人都还没信主，没有去教会 可想而知，我们身处在一个何等大的禾场里，要收的庄稼何等的多。

伟大奇妙的上帝，祂的作为是何等难测，非我们所能明白 中国不是一个可以自由宣

告!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 중국어에배부가 드디어 설립 되었습니다.

뉴욕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모인 다문화 도시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중에 Nassau지역과 Edison지역에는 70여만 명의 중국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분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들을 포함 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퀸즈 지역에는 50여개의 중국 교회만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성도의 수가 수십 명에서 이삼백 명밖에 되지 않는 개척 교회들입니다. 즉 퀸즈지역에 있는 이십 여만 명의 중국인들 중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뉴욕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확장이며,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 서야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능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

教的國家，共产党的法律不允许基督徒公开向人传福音。上帝一边差派祂的仆人使女进入中国，在不同的地方暗暗地宣教与培训 但是，另一边神又使中国的大门向国际敞开，使很多中国人移民到国外，借此有很多到美洲 南美洲 欧洲和澳洲的华人因着接触当地的教会，而蒙恩得救 华人最多移民的国家就是美国，历年位居榜首 来美国的中国人中，也有很多在美国认识了主耶稣 笔者本身和家人，还有很多所认识的基督徒都是在美国信主的 真是感谢赞美主，神用不同的方法，奇妙的带领不同的人在不同的地方认识祂。

因着中国近年来大量的移民潮，不用去中国，我们也可以向一群群的中国人自由的传福音。一踏出皇后区的家门，处处都是华人，处处都可以宣教 特别是皇后区的法拉盛Flushing，这里是皇后区的第一个唐人街，中国人最多聚集的地方。一走出我们教会的门口，就可以向往来的华人传扬福音。何等的美好！真是感谢主，把他们送到我们教会的门口 附近，使我们能有这个恩典为主作工，结果子。

传福音，领人作主的门徒是一个耐力赛，是一场马拉松比赛，不是一下子或短时期内就可见到果效的事工 但是因着全教会的支持与同心，上帝必在我们中间成就美好的事 相信主把我们的教会建立在这法拉盛社区，华人密集的地方，肯定有祂奇妙 伟

大。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는 중국은 자유롭게 선교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의 종들을 중국 곳곳에 보내어 비밀리에 선교하고 양육 해왔습니다. 동시에 중국을 세계로 오픈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주, 남미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이민하게 하여 그들이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 하셨습니다. 그중 중국 이민자가 제일 많이 정착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한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내십니다.

최근 몇 십 년, 중국인들의 미국으로의 대량 이민으로 인하여, 중국 본토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많은 중국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퀸즈 곳곳에서 거의 문밖에 나가지만 하면 중국인들을 쉽게 마주칠 수가 있으며 언제든지 선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퀸즈의 플러싱은 퀸즈 지역의 제일 큰 china town이며 중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 문밖에 나가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지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근처, 바로 문앞에 살고 있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둔나도록 인도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단시간에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큰 지지와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



大的旨意 求主因祂自己名的缘故，带领越来越多的中国人来到教会，认识耶稣，蒙恩得救；使神的名得荣耀，神的国得扩张。

感谢上帝，赐下异象于主任牧师金星局牧师，使他胸怀普世，有向万民宣教的感动与看见，也因着他的异象产生了中文堂 奇妙的上帝也预备好了好同工--黄海玉传道，与众多有心志服事神的朝鲜族的好弟兄姐妹 借着同工与弟兄姐妹们忠心的摆上，相信上帝会大大的使用我们，透过我们成为千万个中国人蒙福的出口，也必将得救的人数天天加给教会，像初期教会一样。

也感谢上帝，众长老 牧者们和全教会的弟兄姐妹都非常的支持中文堂事工 因着他们的支持与祷告，使这事工得以顺利地展开。特别感谢主为中文堂预备了林晶长老，借着他的辅导与帮助必使中文堂的事工恩上加恩，力上加力。

운에서 꼭 역사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중국인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이 지역에 세워 둔 것에 그분의 깊은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고, 그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김성국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과 비전을 주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동과 비전으로 우리 중국어 예배가 생겼습니다. 에베에셀 하나님은 이미 황해옥 전도사님을 비롯한 많은 복음에 열정을 지닌 조선족형제, 자매님들을 예비해두셨습니다. 그 열정과 충성을 하나님은 필히 보시고 사용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수많은 중국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는 영혼들이 매일 매일 더해 질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여러 교역자들과 전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중국어예배를 향한 응원과 지지와 기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성원 하에 중국어예배부가 순조롭게 설립 되었습니다. 특별히 임정장로님을 중국어예배부에 보내 주셔서 예배를 위한 올바른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중국어 예배부가 나날이 부흥 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两千年前，主耶稣走遍各城各乡，宣讲福音，为得是要寻找拯救失丧的羊儿 因为上帝愿意万人得救，明白真道（提前2:4）祂不愿有一人沉沦，乃愿人人都悔改（彼后3:9）甚愿我们在主里的众弟兄姐妹都以基督的心为心，让我们一起同心协力的兴旺福音，在这社区高举基督，使万民归向祂。

愿主赐给金星局牧师的异象也成为我们每一位的异象，正如金牧师在2014年圣诞节的信息里所分享到“迷失的星星-The Lost Star”，让我们不会成为没有异象的人，也不会迷失了人生的方向 我们也是以敬拜 荣耀基督为我们一生的使命与意义 让我们紧紧地跟随景星，像博士们一样，向着神所赐的异象行走，直到见到主耶稣基督。

“神说，‘在末后的日子，我要将我的灵浇灌凡有血气的·你们的儿女要说预言·你们的少年人要见异象·老年人要作异梦·在那些日子，我要将我的灵浇灌我的仆人和使女，他们就要说预言。’”(徒2:17-18)
“耶和華啊！求你在這些年間復興你的作為。”(哈3:2b)

이천년 전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성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딤후 2:4)”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 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벧후 3:9)”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고 만민이 그 앞에 나아오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김성국 담임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과 감동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2014성탄절말씀 “The Lost Star”에서 나누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의 평생 사명이며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쫓아 예수님을 찾아 갔듯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의 진정한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쫓아서 끝까지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땅 끝까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 할 것이요 (행 2:17-18)”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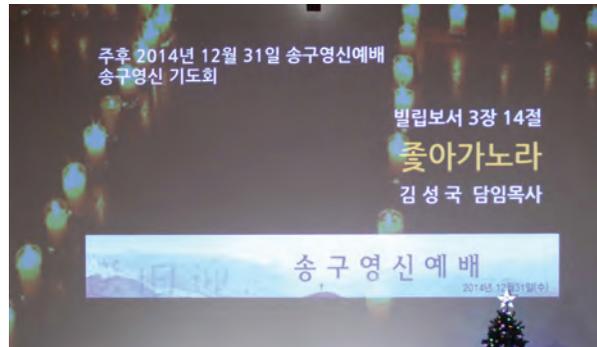


2014년 송구영신예배

기도와 찬양과 믿음으로 보낼 새해를 기대하며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2014년의 모든 날들이 어느덧 꿈같이 사라지고 이제 2015년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되는 설날 그림날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품안에서 감사와 회개로 묵은해를 보내고 기쁨과 소망가운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고자 여덟을 뚫고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밤 10시에 지하 친교실과 체육관에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담임목사님의 사회로 1부 순서인 퀸장 송년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허경화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 후에 아름다운 관현악 6중주 연주를 들으며 여기저기에 있는 테이블마다 예쁘게 진열해 놓은 맛있는 스낵을 행복한 마음으로 먹으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정답을 나누고 격려와 사랑

의 말들을 주고받으며 푸근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시가 되어 본당에서 2부 순서인 송구영신 기도회가 시작 되었는데, 첫째 '잊어버리고'(빌3:13) - 한 해 동안의 설움과 아픔,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 후에 337장 찬송에 이어 다 같이 합심기도를 했고, 둘째 '줄아가노라'(빌3:14) -하나님의 교회는 멈춰 있는 곳이 아니므로 미래와 vision을 보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으며 542장 찬송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합심기도를 함으로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3부 순서인 송구영신 예배는 글로리아 선교중창단의 감동어린 찬양 '내 주를 가까이'로 시작된 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하루를"(시



5:3)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2015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감사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하며, 둘째 하루를 찬양하며 보내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환란 중에도 찬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맞보며 보내고, 셋째 믿음으로 하루를 마치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하루 하루 곧 기. 찬. 믿음으로 새해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248장 찬송과 456장 찬송을 부른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두 줄로 앞에 나가 새로운 해를 인도해주실 축복 성구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는 듯 한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맞이한 새해의 첫 발걸음을 말씀을 들고 벽찬 기대 가운데 힘차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편집부 정혜경 권사]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새해

벽찬 감격과 소망가운데 2015년의 밝은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해 첫날 아침에 주님께 먼저 세배 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쁜 옷으로 곱게 단장하고 주님 집에 나와서 본당과 지하 친교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관현악대의 힘찬 서주가 울려 퍼진 후 담임목사님의 사회로 신년 하례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550장 찬송과 김용생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이어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축복'이 있는 후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메시지 '물아 솟아라'(사35:1-10)를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에덴동산에서 살았으나 죄로 인하여 광야로 쫓겨났는데, 이 광야는 메마르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며 고통과 슬픔, 눈물과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1 광야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광야생활을 가슴 아파하시어 백합화가 피고 기쁨이 가득한 희망과 승리의 장소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2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므로 과거(광야)의 게으름과 모든 악하고 추한 것은 물러가고 변화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피곤하고 메마른 삶이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3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으니 광야의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듯 용서와 회복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비록 광야에서 사는 인생이지만 주눅 들고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성숙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성도가 되라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소영 청년의 아름다운 Flute 연주를 들으며 새해의 소원과 우리의 정성을 담은 신년 축복 씨앗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신년도 제직 임명이 있었으며 광고 후에 우리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은혜롭게 행하고 620장 찬송을 일어나서 부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새해 첫 예배인 신년 하례 예배를 감사함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맛있는 설떡을 나누어 주었으며, 지하 친교실에서는 남녀선교회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푸짐한 떡국 잔치가 벌어져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궁홀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된 2015년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주신 복된 사명과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 부어주실 크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승리와 형통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편집부 정혜경 권사]



주후 2015년 1월 11일 주일 저녁예배
제직수련회 폐회예배

야고보서 5장 13-18절
하늘 문이 열리고
김 성 국 담임목사

2015년 제직수련회

하늘문이 열리고

김성국 담임목사



2015년 제직수련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깊은 섭리로 사랑
하는 자녀로 선택받고, 몸 된 전을 충성스럽

게 섬기도록 복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
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슬한 고난과 슬픔과 절망을 목격
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찾아 세
월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힘을 믿거나 물질 만능주의에
젖은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악의 세력에 눌
려 신음하는 우리의 불쌍한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자신
과 가족들에게 주실 축복만 구하던 그 자리
에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며 고통 받는 이
웃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날로 부패해가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
되기 위해 겸손히 무릎 꿇고 인내하며 믿음
과 소망과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우리
교회와 제직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찬란하게 밝아온 2015년 새해 벽두에 이 귀
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제직들을 부르신 2015년 제직 수련회

가 1월 9일(금)부터 1월 11일(주일)까지 주님
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김성국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라는 주제로 넘치는 은혜와 깊은 감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내게 주실 축복에만 연연하며
근시안적인 믿음 생활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
하고 더 깊고, 더 넓게 이웃과 민족과 타민족
과 세계를 품고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
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 축복이 무엇인지 배
우고 다짐하며 깨달은 정금같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
이 쉬도록 부르짖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
회에 맡겨 주신 중보기도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그 결과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주
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월 9일(금) 저녁

너의 소원이 무엇이나?(대하 1:7-13)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소원을 물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여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함께 받은 것 같이 제직들은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끌고 나와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제직원은 자기만을 위하여 조용히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 받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우리 제직들에게도 너의 소원은 무엇이나, 너는 무엇으로 이 중보기도의 영적 싸움에 나설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1월 10일(토) 새벽

주려 기진한 아이들(애 2:11-19)

자녀들이 굶주려 죽고 악에 놀려 있게 된 것은 부모들과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잘못과 책임이므로 이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 그들의 성벽이 되고, 그 기도의 열매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며 회복되고 vision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세대가 되게 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가슴에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는 부모와 제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려 기진한 아이들을 위하여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듭시다.

1월 10일(토) 저녁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사람(겔 22:130-31)

중보기도자는 깨진 틈, 망대 위, 전쟁터, 길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의 자세로 영적으로 깨어 험한 길을 앞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로 길을 여는 자이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레미야 5장1절)이며, 의롭게 살기를 애쓰며, 영적으로 정결한 자로 성품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그 대체자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므로 모든 제직이 이 시대의 기도꾼, 파수꾼이 됩시다. 오늘 중보기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중보기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월 11일(주일) 오전 8:30

우리 함께 기도해(마 18:18-20)

우리 주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기뻐하시며, 교회가 힘 있게 연합이 되며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과 축복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므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임재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휘하시며 조화를 이루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온 우주만물을 함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와 가정이 됩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그 능력과 축복을 알게 합시다.

1월 11일(주일) 오전 10:30

희망을 선포하라(속 14:6-10)

하나님의 일은 재물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되며, 믿음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면 길이 열리게 되고, 비록 작은 시작이라도 반드시 크게 마칠 수 있으므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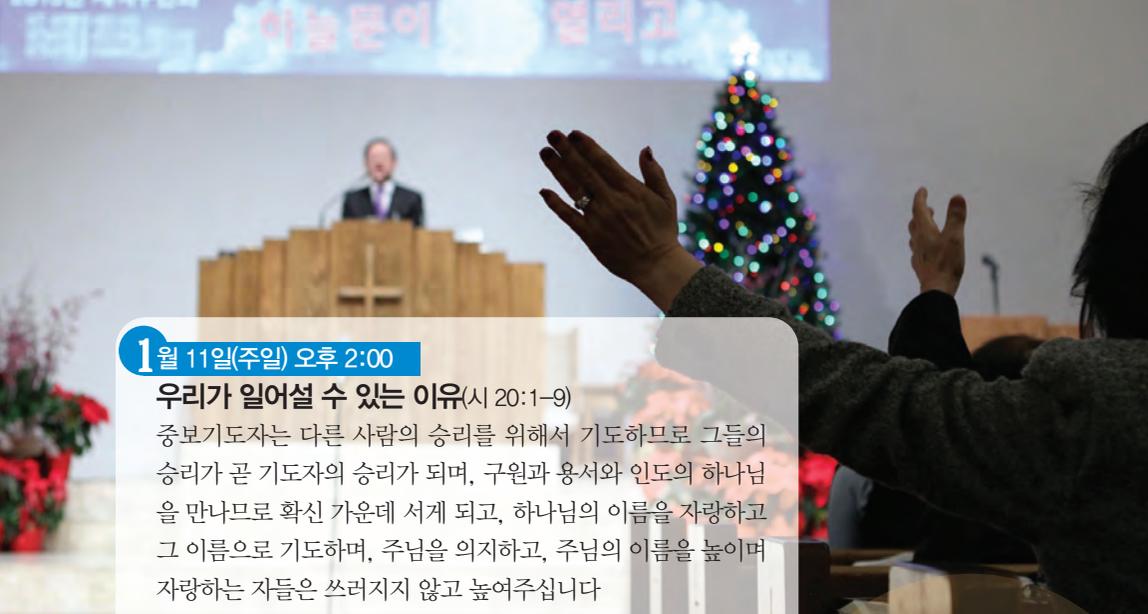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은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큰 산야 은총 받은 스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작게 시작한 일이지만 반드시 마치리라".



1월 11일(주일) 오후 12:15

기도해야 경험한다(렘 33:1-30)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바로 기도할 때이며, 기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줍니다. 기도는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서로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1월 11일(주일) 오후 2:00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시 20:1-9)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므로 그들의 승리가 곧 기도자의 승리가 되며, 구원과 용서와 인도의 하나님을 만나므로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은 쓰러지지 않고 높여주십니다

1월 11일(주일) 오후 4:00

하늘문이 열리고(약 5:13-18)

하늘의 문이 열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격려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중보 기도자는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품고 기도하므로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경외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빔줄기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말씀이 끝난 후에 모든 제직들이 예배실 양 옆으로 나와서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웃과 지역 사회와 민족을 위해, 타 민족과 이교도들을 위해, 이 땅의 치유를 위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공회와 사랑과 인내로 중보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제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집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

교회설립 41주년 기념예배



아직도 예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혹독한 한겨울의 추위가 우리의 온 몸을 감싸지만 머지않아 찾아올 따스한 햇살과 찬란한 꽃으로 가득한 봄을 기대하며 설렘 속에 주님께서 보혈 위에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마흔 한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41년 전에 원로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겨자씨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햇살과 단비를 맞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넘치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빛을 갈 때가 되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고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가는 눈발이 날리고 싸늘했지만 기쁨과 감사 속에 밝아온 2월 22일 주일 2부 예배는 중국어 예배와 함께 드리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3부예배는 영어 예배부와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이 날 1,2,3,4부 예배 때에는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영어 예배부 새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헌금을 약정하는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드렸으며, 지하 친교실에서는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맛있는 점심식사를 온 교우들에게 대접해주어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 예배는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예배로 장학금 수여식과 기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제1부 예배가 시작되어 허경화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와 연합 찬양대의 힘찬 찬양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가 울려 퍼진 후에 '교회가 평안하여'(행9:31)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 회심한 사울(바울)을 꺼려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중재한 바나바의 역할로 그곳의 교회가 평안해진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말씀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로 든든히 서가고 그 말씀의 열매로 수고가 더 많아진 것 같이 더욱 말씀위에 든든히 서서 성령님의 역사로 영적,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우리교회와 이 세대가 되자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제2부 장학금 수여식 시간에는 먼저 영상이 있는 후에 장학위원회 박정봉 집사의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심사숙고하여 선발된 중, 고등학생 12명과 대학, 대학원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바벨론에 잡혀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설성은 청년의 감격에 넘친 감사의 답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의 마음으로 뿌린 작은 씨앗이 모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꿈과 기쁨을 주고 격려하는 계기가 된 것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3부 기념음악회는 새로 창단된 Blessing Ladies Choir의 고운 화음의 찬양('있으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으로 막을 연 후에 윤지현 청년의 그윽한 Cello독주 '사랑은 언제나 오



래 참고, 'Salut d'amour, Op.12(사랑의 인사)'를 꿈을 꾸는 듯한 감동 속에 듣고 나서 강혜영 집사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독창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어서 윤소영 청년의 은혜로운 Flute연주인 '하나님의 은혜/오 신실하신 주와 신나는 'Flight of the Bumblebee(왕벌의 비행)'를 즐긴 후에 조은빛 청년의 Violin 연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와 'Czardas(차다시)'의 황홀한 선율에 매료되어 감동의 도가니에 푹 빠졌습니다.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로 Gloria Singers의 힘찬 찬양 'The Awakening(깨어나라)' 과 '우리 함께 기도해'가 끝난 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일어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뒤에 담임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로 41주년 기념예배를 모두 마쳤으며,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맛있는 교회 생일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우리 교회 생일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만져보고 즐긴 날,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수금과 비파로,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 복된 잔칫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주셔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에, 다윗 왕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새성전 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실천해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예배

예배위원장
김원도 장로



주후 2015년 2월 22일 주일 예배를... 사회자 목사님의 경건하신 예배선언과 함께 온 회중은 기립하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찬양대와 관현악대의 개회찬양으로 퀸즈장로교회의 주일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신 원로 장영춘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통해 배운 대로 온 교회가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증가하므로 예배실의 협소와 주차장의 어려움 등으로 주일 예배시간을 1부에서 점차 늘어 4부까지 증가하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 초기부터 고국에서 밀려오는 유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2부 예배에 접목시키고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우리교회만의 특별한 예배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 중 “찬화와 경배의 시간”과 “치유와 축복의기도” 시간은 그 어느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순서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눈물의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2013년 11월에 현재 담임 김성국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 40여년의 우리교회만의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좀 더 발전적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다운 예배로 발전 되도록 기도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준비하며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교회조직의 개편을 통해 예배국이 신설되고 예배위원회가 잘 조직되어 출발하였습니다. 매주 발행되는 주보도 새롭게 단장되어 예배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특별하신 목회 방침 중 다민족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영어권(QPEM)과 중국어권의 예배와 연합하여 한 교회의 뿌리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다민족과 함께하는 퀸즈장로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열정으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양팔을 들어드리는 ‘아론’과 ‘홀’이 되는 온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더욱 확대 될 것이며 예배 순서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도와서 영상과 광고 내용의 질을 높이어 Dramatic한,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순서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 행사 때에는 주무부서 간에 사전 협의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준 높은 예배와 행사가 되어서 모든 순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예배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배위원회의 Goal은 “하나님께 영광” “은혜와 축복의 예배”에 있음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 위원회 안에 4분의 엘리트 집사님들로 구성된 1-4부 예배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준비 위원들이 예배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 서원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교회 부흥의 불길이 계속되는 2015년이 되어서길 기원합니다.



제자훈련 및 영성훈련



장년성경공부위원회
홍승룡 장로

2015년도 제3기 제자훈련 및 제 1기 영성 훈련이 시작 되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직 말씀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기와 제2기 제자훈련생 108명을 배출하였고 지금 제 3기 제자훈련생 59명 제1기 영성훈련생 45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중심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으로 14주의 훈련 속에 성경 1독, 영성일기 쓰기, 매일 기도 20분 이상하기, Q.T하기, 성경 22구절 외우기, 신앙서적 읽고 독후감 쓰기, 교재 숙제 등으로 숨 돌릴 수 없는 속제 속에 힘들고 어렵고 산 넘어 산 같은 훈련 이지만 결국은 한가지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환희요, 기쁨이요, 찬송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한명의 낙오자 없이 1, 2기를 졸업한 제자훈련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진짜 진짜 제자 훈련 잘 받았다”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의 변화, 지옥에서 천국



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앙적 나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림 1]
새로 시작된 영성훈련은 모범 되신 그리스도, 사명의 확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기도훈련, 팀워크, 세계선교, 성품, 윤리, 청지기, 지도자로 13주의 훈련 속에 성경암송

22구절, 신약 읽고 은혜 받은 구절 쓰기, 암송구절 묵상과 쓰기, 기도 20분하기, 신앙서적 읽고 독후감 쓰기, 교재 숙제하기 등으로 영성훈련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 가는 과정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함께 걸으면서 나의 독특한 영성을 찾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림 2]



[그림1] 제자훈련 과정



[그림2] 영성훈련 과정

2015년 여선교회의 목표



여선교회 연합회장
정영숙 권사



2015년은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가 되자' 라는 표어를 꼭 실행해 나가는 여 선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전도회로 이어오던 명칭이 선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도약하여 세상을 품고 나가는 선교회로 재탄생하면서 우리 여 선교회에서는 2015년 한 해를 선교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려 합니다. 첫째로 다음세대를 위한 성전건축에 보탬이 되도록 올해에는 4번 정도 맛있는 김치를 담그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선

교를 위한 적극적인 보조를 위해 선교바자와 가을에는 건축을 위한 대 바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 선교회는 또한 교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요구에 앞장서서 나가려 합니다. 또한 우리 여 선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귀한 모임이라 자부합니다. 회원 한분 한분이 귀하고,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맛보며 나누는 여 선교회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전진하길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향로의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생여정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강사 김성국 목사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28년 전 평신도(지도자반)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소명과 사명을 가지시고 그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평신도 제자훈련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퀸즈장로교회에서 평신도사역원의 큰 비전속에 1차로 108명의 평신도 제자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성 훈련 후 사역훈련까지 받아서 평신도 제자훈련지도자가 양육되겠지만 하나님아버지께서 김 목사님께 주신 비전속에 소명과 사명과 열정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제자훈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가득 할 것입니다. 더불어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에 능동적 긍정적으로 참여하셔서 전교인의 그리스도의 제자 화는 물론 교회학교까지 확대되어 영아부 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제자훈련에 동참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비전도 함께 이루어 질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선교회



남선교회 연합회장
정철호 집사

희망의 2015년이 밝아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 또 다른 세대를 향하여 나가는 도약과 전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금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새롭고 위대한 비전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인 '더 깊은 영성으로 제자화된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 '다민족의 복음화'는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면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귀중한 시기에 남선교회 연합 회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으나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연합 선교회의 표어는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은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가 되자' 이고,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7장 24절, 주제 찬송은 546장 찬송이며, 명칭도 기존의 '전도회'에서 보다 넓게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담임 목사님의 의도 아래 '선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선교회의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4월 18일 부터 4월 25일 까지 'Perspectives 선교 집중



세미나' 가 있을 예정이고, 5월에는 '효도 관광'과 '전교인 한마음 축제', '함께하는 선교 바자회'가 기다리고 있으며, 6월 초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중에 영어 예배부 새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건축 바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남, 여 20개 선교회에서는 각 선교회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정하여 물질과 기도로 도우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므로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계획한 새로운 선교 비전과 계획에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동역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계속되는 불황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지만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선언한 갈렙과 같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 막힌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이 평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순종의 믿음과 사랑의 중보기도로 힘을 합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비전에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하여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란 무엇이며 누가 소명의 사람인가요?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정길표 집사

‘먼저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몇 마디로 정의 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더라도 매우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선교가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선교에 내가 동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막연하게 선교의 전방 또는 후방에서 동참하기 보다는 선교가 무엇인지 먼저 가르치고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교의 정의를 외치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신학적 배경으로 또한 나름대로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기에 그저 순수한 평신도의 신앙으로 선교에 동참 하려는 우리

에게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고 사역에 동참하며 때론 함께 협력하며 실질적인 선교현장의 눈물과 보람된 사역들의 기쁨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정립된 선교관을 함께 나누므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립의 학문적인 이해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실제의 선교 사역에 관한 현장의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순수한 믿음의 분량대로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족 하지만 저의 선교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선교나 전도는 글자 그대로 도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 모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에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선교와 전도는 "선"이라는 글자와 "전"이라는 글자가 차이가 있듯이 약간의 그리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교는 타문화권 즉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먹고 사는 방식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전도는 같은 문화권 또는 유사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교나 전도나 그 문자적인 해석 또는 학문적인 정의는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단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 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자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저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 일을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이제 다시 재림 하실 때는 심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파송된 선교지에서 언제까지 사역을 해야 할까?

성경에 우리의 상식대로 쓰여 있지 않지만 가서 먼저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토대로 제자가 되고 세워진 그들의 교회가 다시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삼아 그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의료 봉사, 지역 개발, 교육사업 등 사회사업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로 우리의 목표를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어떻게 이 사역에 동참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기도 와 물질로써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자로 또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는 즉 가는 선교사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는 선교사는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평생 선교사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말씀 전하는 전문가로, 은사를 가지고 가는 자는 받은 은사의 전문가로써 복음 사역에 함께 협력하며 동역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사가 없다고 주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전문적인 은사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 언제 동참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동참 할 수 있으나 단 준비의 과정부터 동참 하여야 합니다. 즉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은 비단 가는 선교사만이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훈련이 필요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고 전도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싸우러 가는 군사나 군대가 훈련 없이 나간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이미 시작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이순간도 그 싸움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누가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명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이라 함은 calling, 즉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소명의 순간이며 소명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받은 사명대로 순종하는 소명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찬양 레시피

임마누엘 찬양대
정해성 집사



이제 겨우 11개월 된 새내기 요리사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곳은 '퀸장식당'. 41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10년 전에는 카네기 무대에서 그 위엄을 뽐내었던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는 네 곳의 주방이 있는데, '임마누엘'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로 불리는 각 주방에는 솜씨가 뛰어난 셰프와 각각 5,60여 명의 선배 요리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요리를 합니다.

모두 2백여 명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식당의 손님은 어마어마하겠지요? 전통과 역사로 보나, 요리사 규모로 보나 한마디로 '대박' 난 식당일 것 같은데, 정작 '퀸장식당'에는 달랑 식탁 하나와 의자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위한 식당이 아니라 오직 주인 한 분만을 위한 요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주인님만이 그 식탁과 의자를 차지할 수 있죠. 단 한 분이지만 수많은 요리사들은 쉬지 않고 즐겁게 맛난 요리들을 만들어 냅니다. 한결같이 행복한 맛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좀 독특합니다. 수 없이 많은 요리사들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멀쩡한 요리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에 일했던 '베드로' 라는 요리사는 발등 짝은 민턴 도끼가 되어 주인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속없는 주인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서 다시 거두어 주었다고 하고, 식당에 몹쓸 해코지를 하던 '사울' 이란 친구를 거두어서는 당대 최고의 셰프 '바울' 로 키워 주기도 했대네요. 도

무지 요리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데도 주방마다 맛있고 보기도 아름다운 음식들이 만들어지니 참 신기하죠. 세상 주인들은 아낌없이 버릴 것 같은 상처 난 것, 구부러지고 시들어가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를 능가하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게 하니, 이 또한 참 신비롭습니다. 주인님이 빵 다섯 덩어리와 생선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이제 세상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주인님의 성품을 닮은 주방에서는 감동이 있는 요리로 눈물 나게도 하고, 때론 마음 따뜻한 요리로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기도 합니다. 심신이 지쳐 쓰러져 가는 이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주인님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이 오히려 음식을 만든 주방의 요리사들과, 그 밖과 주위 모든 사람들까지 따뜻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해주니 우리 주인님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식당의 요리사들이 참 열심히입니다. 작년 말에는 세계 최초(?)로 '엘리아' 를 초호화판 뷔페식으로 차려서 대성공을 거두더니 올해에는 남성전용 주방, 여성전용 주방, 시니어 주방을 만들면서 더욱 다양하고 색다른 요리들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이기를 힘쓰며 요리연구를 하고 있지요.

이제 막 이 주방에 들어온 제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운 광경들입니다. 오랫동안 작은 주방에서만 일해 왔던 터라 큰 식당의 큰 주방은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요리사"들의 모습입니다. 주인님만을 위한 요리, 그 분이 원하시는 요리, 그 분이 기뻐하시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풍성한 기쁨으로 드러지는 헌신과 노력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두 "주인을 닮아가는 요리사"가 되겠다고 소망하며 매일 "기찬요리"(기도하고 찬양하며 만드는 요리)를 연습하며 뛰어난 실력을 키워 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솜씨를 뽐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 이 되어 맛을 내지만 그 맛이 짜지 않습니다. 김치를 만나면 김치 맛을 내고, 곰국을 만나면 곰탕 맛을 냅니다. '소금' 이지만 자기를 들어내지 않고 재료와 어울려 '제 맛' 을 내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진수성찬이 한 분께 드러지고, 그 속에 가득한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방인가요?

제가 속한 퀸장 주방은 참 행복합니다. 화덕처럼 뜨거운 열기 가득한 '영' 이 있고 얼어붙은 마음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변화 시키는 '사랑' 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찬양' 이 있습니다. 주인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과 넘치는 '축복' 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단 한 분만을 바라보는 곳, 이런 퀸장주방에 아름다운 '찬양 레시피' 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자

지난 2월 22일, 퀸즈장로교회는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중, 고등, 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앙적 인재 양성과 미래 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신설된 장학위원회가 처음으로 교회 모든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 공고하고 총 55명의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1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외 5명의 장학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의 교역자가 학생들의 신청서를 수집, 신청서에 기재된 실명을 가명으로 변경한 후 심사위원들에게 그룹별(중등/고등/대학, 대학원)로 에세이 심사를 맡겼고, 1차 개인 심사를 거쳐 그 중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신청서와 에세이를 위원회 전체가 모여 검토하며 2차 심사를 하는 등,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심사기준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 교회 내 활동,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과 시상내역 외에 비전, 소명, 사명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에세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소명과 비전을 확고히 세우고 나아가길 원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과

열망이 담겨 있다.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 앞으로 장학위원회의 사업은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 중에 인재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군을 길러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비록 당장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는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장학 현금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강희재, 곽지은, 김동호, 김진영, 박성진, 박은호, 설성은, 소승우, 손유리, 신혜지, 심혜성, 윤수영, 이하나, 정연지, 정희영, 차기훈, 최유라, 최재영, 허남준



장학생 에세이 소승우

People often ask, "What is your vision?" Those questioned visions usually go down to our own self desired dreams. One of the most difficult categories for Christians to truly know is what their vision that God has planned for them. As every individual goes to school, to pick a major, one usually searches for what fits them the best. For myself, it was very difficult to stumble upon my major, Hospitality Management. I never had a vision for myself and for God. However, after attending school for three years aimlessly, through God's guidance, his vision for me started getting clearer. After I was very blessed through last year's summer retreat, I started to share the joy and the love I got from God. Knowing that many people walking around me on the street do not know God or do not have the chance to meet God, I felt very pity for them. What I decided from that moment on is to remind others that God loves us all. Evangelism is very hard today due to more people going against Christianity. With just my plan and action, it won't work. God has to work in us in order for others to accept Jesus as their savior. I learned through the summer retreat that every little action counts and God will see that. Every time I paid for parking meter if there was some time left, I would try to find others who are about to pay for their parking. As I gave them the parking meter paper, I would say, "God bless you!" or "God loves you!" hoping that God will touch them. As I was aimlessly going to school for three years in Queens College and working in T-Mobile, through so many prayers, I started feeling the heart for management. Searching for jobs with the goal of just putting money in my pocket always led to failure. However, as I was overseeing my manager's stubborn problematic actions towards all the workers, everyone was suffering and arguing. I started thinking to myself, 'If I was the manager, I would do it this way and that way to keep the workers together as a team and as a family'. All of a sudden, this thought came to my mind, 'If I could become a good manager that everyone would like to follow and show that I am a strong Christian, maybe through my actions it will reveal the heart of Jesus!'. If God works in me, it will help share

the gospel just like that! While I was attending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 as hospitality management major, I started feeling in my heart that I want to become a manager that will embrace and guide the employees. Leading them with love rather than our general image of a manager like nagging and scolding. I want to become a manager that everyone would respect so after many years of experience, I hope to gain strength in my job position. With that ability, depending on where I would work, my vision is to put the bible in every single room of a hotel, hospital, or in the employee room to expose gospel. If I have the ability, I would try to even put a bible verse on the wall to go further on. If others who did not meet God see the bible or the bible verse that I set up with everything that I could do, God will work through it and touch these individual's hearts.

We can't achieve anything without God's help but in Philippians 4:13, "I can do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will depend on God and lay everything down to him. Once I lay all of myself to him, that's when he will start working. To make someone believe in Jesus Christ is very hard today. However with my vision, if I do my part and God works in me, I believe that it will save so many lives to heaven. That's how my vision will serve the kingdom of God. I want to be known as a respectful, humble, and loving Christian manager on this earth that will save many lives with God together.



장학생 에세이 정희영

I have big hopes and dreams for my perfect life. I want to attend the ideal college. I want to excel intellectually and be successful in my career. I dream of one day becoming an iconic female figure in history. I hope to marry the perfect husband and eventually settle down with the perfect family. However, I know that these are simply my own earthly desires. My plans for my life may not fall under God's plans for me and His kingdom. Despite all of my selfish dreams, my ultimate vision in my life is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and carry out His plan to restore His kingdom.

When God created this world, it was perfect. Adam and Eve were made in His image which is without sin. Ever since the fall of mankind and the entrance of sin, God has been working towards restoring His perfect kingdom. He has a plan to redeem humanity and save us from our sins. God already saved us when Jesus Christ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Now it is our job to follow in the steps of Christ to fulfill God's plan for His kingdom. It is my job, as a Christian,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I know that doing this will be difficult. I understand that I will face challenges. But I also know that difficulty and challenges are the things that come with following after Christ.

Before Jesus was arrested to be crucified, he prayed on the Mount of Olives. In his prayer he plead to God, "Father, if you ar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But then he said,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Knowing that he was about to face an excruciating death, Jesus asked God if there was any other way. But this death on the cross was part of God's plan to save us so Jesus obeyed. I strive to be as selfless and as obedient as Christ was in his prayer on the Mount of Olives.

As I continue my education in college, I also want to continue my spiritual journey. I pray to God and remind myself everyday,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I know it will be challenging but I am willing to give up the things I want in life if it means to serve and glorify God. Dave Harvey, a Christian is professor, said, "Our failures are never big enough to interrupt God's plans for us." I may not have gotten in to my dream college, but I can serve God in any college I attend. My life may not go as I have planned, but God's plan will always be on track. Ultimately my vision is to live my life with a sole purpose to execute God's vision for His kingdom by following in the steps of Christ.



장학생 에세이 심혜성

As a little boy I've always wanted to play professional basketball. Over the years I have learned that everything we do should be for God's glory not our own. God comes first in my life because he ha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So if, I want to play professional basketball in the future it should be for the glory of Go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now know that I must work hard and have a strong connection with God even if things don't work out as I would like it too. I say this because I believe that God has a perfect plan for me and it is even better than what I want now. I am willing to try to increase my knowledge spiritually, mentally, and in basketball. Still in order to achieve my future goals, I want to graduate college with a master's degree and head for Korea to play professional basketball. Though this is what I want to do I have accepted the fact that it is important to be the light of Jesus all the time. Therefore, I plan to lead my future teammates and friends to Christ and help them earn their salvation. I also plan to lead my future family to Christ which means bringing them to church and teaching them about Jesus everyday based upon what I have been taught at home and at church. In this case the former can serve the latter by evangelizing people and helping them come to know Jesus more. I want God to take over my life and i want him to use me for a great purpose. If I make enough money in the future I plan to donate to charities and Christian foundations. Even though it may be hard I can try my best to show the love of Jesus while playing basketball by not getting into fights or accidents and showing kindness. I strongly believe that this is important due to how it was Gods command to show love and kindness. I want to show love and compassion that I have been shown because I take religion very seriously. What I feel good about is that God can use me to do anything and this gives me confidence to help my peers come to know the Jesus Christ. Even if this may be very hard to live up to I know that through Christ anything is possible. All in all, I see myself becoming a future athlete as well as an evangelist for God's Kingdom.

영원한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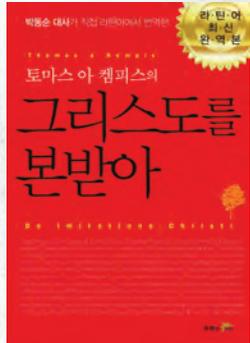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을 잃었을 때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다면 그 재물을 잃었을 때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기에 행복하다면 그 건강을 잃었을 때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얻음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반면에 그것을 잃음으로 인해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을 보배입니다.
사람은, 돈은,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고 나의 곁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만은 나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 기도하고 원할 것은
나를 잠시 행복하게 할 그 무엇을 구함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만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한 분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얻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에.

- 출처미상 -

담임목사 추천 도서 김경구 권사



토마스 아 켈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자/역자 | Thomas a Kempis
출판사 | 두란노
출간일 | 2010-09-13
부가정보 | 352 페이지 | 128*185 (mm)
분야 | 경건
원서명 | De Imitatione Christi

2015년 봄을 맞아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권장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책은 경건한 삶을 누린 토마스 아 켈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이 책은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존 뉴턴 등 세계 영적 대가들을 회심시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게 만든 책이다.

중세 말기에 처음으로 나타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책은 저자의 신앙고백서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가 40대 때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대화한 내용을 언어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1권에서 저자는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와 말, 행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생활, 맹목적인 지식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잡다한 언사, 헛된 교제, 경솔한 판단을 피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제 2권에서 저자는 영적 생활의 초보단계에서 벗어나 외면적이 아닌 내면적인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일에 자신을 바치며, 겸허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관용하여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며 담대하게 지고 나아가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 3권에서는 그리스도와 제자 사이에 나는 담화 형식으로 엮여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제 4권에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찬식이 매우 중요한 의식이며 열심히 이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풍성한 영성과 명쾌한 문체로 인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25:7-8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 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계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6: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계2: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 3: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퀸즈장로교회 2015년 사역위원회 조직도

행정국 고국환



예배국 김원도



교육국 이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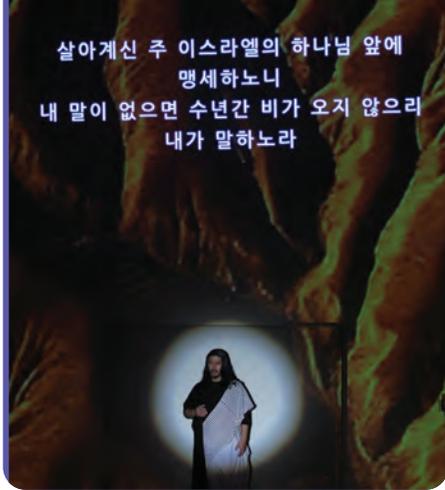
선교국 임정



관리국 운영철



영어회중국 정성호



성탄축하찬양
조나영 집사

오라토리오 엘리야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노래가 되길 사모하며 걸어 온 세월들...

어느덧 대학생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저에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 없이 나의 발걸음을 찬양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항상 어린 백합 같은 연약한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불을 만난 엘리야를 찬양하게까지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세대의 꿈이 있는 교회,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여 3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기도하여 이민생활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심에 순종하며 시온 찬양대에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영감으로 지휘하시는 윤원상 전도사님의 리더십에 감동하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 마다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2014년 성탄절 찬양으로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한다는 말씀에 성탄절과는 관계없는 곡이지만 워낙 대곡이고 그 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체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빨간색 바인더로 된 엘리야 곡을 받는 순간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200권이 넘는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윤전도사님의 우리에게 불로 임하실 주님을 체험케 하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천지창조에 이어 올해는 엘리야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살아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개월 동안의 연습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 중에 늦은 시간에 파트연습 할 때면 너무 피곤하여 누구 할 것 없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을 감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로운 아름다운 곡조로 나의 귓전에 들려와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기며 달려와 연습에 임하는 찬양 대원들의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귀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파트너가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회복하는 자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홍보영상과 Trailer를 홍보하며 10명의 자리는 나의 몫이라고 다짐하여 카톡으로 열심히 날려 "열매 맺는 카톡"이 되었습니다.

연습이 끝나는 저녁마다 맛갈스런 손맛을 자랑하며 차려진 저녁식사 감탄! 감탄! 몸과 마음을 온전히 녹여주는 음식의 맛으로 주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퀸장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의 사랑 깊은 미술의 손맛으로 연습을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저녁 오케스트라, 독창자, 영상팀, 조명팀, 바디 워십팀들과 함께 리허설 때 엘리야의 불이 이곳에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한편, 복된 교회로다! 복된





교회로다! 라는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오라토리오 엘리야' 를 최초로 '오페라 엘리야' 로 새롭게 각색하여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많은 영혼들을 불러 주심에 뜻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초대형 스펙터클 무대로 마음의 눈을 사로잡고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불이 온 회중 가운데 내리시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거듭난 시간이 되게 해달라며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본당의 자리가 부족하여 보조의자가 양쪽의 채워지는 은혜 중에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오페라 엘리야' 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절규가 담긴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속에서도 빛을 내시며 자비하시고 은혜 넘치는 정의의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확신의 찬 찬양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포함 850명과의 1대 850의 비교할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결! 거짓된 선지자들의 참 하나님인 신을 조롱하며 감정이 격해진 절규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찬양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너를 지키시리라'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소서' 엘리야의 승리의 노래가 시작되며 근심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힘을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불변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엘리야' 는 우리

모두를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없었던 특별 무대와 조명을 통해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불이 온 교회와 참여한 온 회중 가운데에 내리며 엘리야의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같이 체험하며 가슴이 뛰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독창자, 영상팀, 조명팀, 바디 워십팀, 방송실 등 교육부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페라 엘리야' 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와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의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 나의 가는 길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탄축하예배 채영주 집사

별의 또다른 이름은 비전입니다

성탄절에 교회로 나오는 길은 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여전히 소란하고 삭막한 도시의 길거리인데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사뭇 달리 보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볼품없는 장식마저 정겹게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는 소란함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구주가 오실 거라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소란케 했고, 호적을 하라는 명령은 온 로마를 소란케 하고, 베들레헴 거리는 사람으로 넘쳐나서 결국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깊은 밤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목자들 때문에 그 곳은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4년에 드려진 성탄 축하예배도 소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실과 무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소리를 조율하며 조명을 확인하는 방송 팀, 축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마지막 리허설로 분주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하랑예

모든 교회의 꿈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쫓아가야 합니다.

찬, 바빠 장품을 차지하게 되는 예화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도전을 주신 설교에 이어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국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9-11절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왕 즉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것이 꿈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다 그 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것으로 인해 대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산함으로 그려낸 성탄축하예배 그림의 배경은 온통 기쁨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별을 찾게 되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의 또 다른 이름은 비전입니다. 별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꿈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 날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동방박사와 같이 끝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이어진 축하 찬양의 순서에는 영어 예배부의 연합찬양대가 부른 '영광나라 천사들'을 시작으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하랑예찬, 청년부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하랑예찬 강지영 전도사

예수님 사랑 나누기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Happy Holiday”로 인사를 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party로 너무나도 분주한 Holiday가 되어버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학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나눌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고아원, 병원 homeless shelter 등.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도움이지 어린아이들이 직접 오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장남감 옷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이런 곳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하랑예찬 아이들과 직접 마음을 다해 사랑을 나누려 하려 했지만 실직한 뉴욕 상황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추천된 곳은 밀알 장애인 선교단체였습니다.

웬지 한국 단체라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떨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더 연약한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면에 밀알에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프로그램에 와서 크리스마스 예배와 공연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함께 의논 하였더니 다들 함께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며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프로그램에 오는 장애인 아이들 39명 청소년과 장년들 35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list를 받아 교회학교 아이들이 wish list에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부터 초등부 까지 부모님들의 도네이션을 통하여 따뜻한 점심, goody-bag, 장년들 선물까지 정성



으로 충분히 채워진 도네이션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랑예찬 아이들은 매주일 Sin Chair musical과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 받은 많은 사랑을 연약한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소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손길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또 물질로 도네이션하는 손길 까지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러지는 정성들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제 밀알에 가는 12/20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 밴드 타고 밀알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소유영 전도사님과 소철화 집사님의 찬양과 소윤종의 첼로 연주 “저들 밖에 한밤중에”를 찬양 하며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송은주 선생님의 “Shout to the Lord”수화 찬양, 하랑예찬의 뮤지컬 “Sin Chair”와 찬양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그리고 조성운 목사님의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누가복음 2:14 말씀을 주시고 유스오케스트라의 연주, 소철화 집사님의 White Christmas, 하랑예찬의 “Jingle Bell” 그리고 한어중고부와 예배와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맞추었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산타로 등장하신 소유영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성으로 풍성하게 잘 준비된 선물은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까지 기쁘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한 200여명 된 것 같습니다. 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은 선물을 받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들여 공연을 준비한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긍휼사역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Reflections from the QPEM College Retreat"

Jae Oh



and answer a question, depending on the color. For example, anyone who had picked out a red M&M had to share their favorite childhood moment. One of the questions designated to a color was "Why did you come to this retreat?" As each person who stood responded to this question, it became apparent that their motivations for coming to the retreat were very far from that of worshipping our God. They were here because they wanted to ski or to be with their friends. As discouraged as I was to hear that, I had appreciated their honesty. Furthermore, it got me to re-examine my own motivations for being there. Was I really there to glorify Jesus and serve my brothers and sisters? Or was I simply there to go through the motions as an obligation?

Despite my lack of faith in His perfect plan, God reminded me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 retreat of how He is so good, all the time. He showed us that love is kind and humble through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gladly served to prepare each meal. He showed us that love overcomes all shame as we shared openly about our shortcomings and deepest thoughts during the small

"It's not going to work." As Pastor Brian shared with the Young Adult/College Group Ministry leaders about a ski retreat aimed to reconnect with the out-of-state college students, it was met with my skepticism and doubt. How would a ski trip accomplish anything i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ose who have gone away to school and possibly strayed away? Why weren't we utilizing these valuable resources for those who are here and have already committed themselves to the church? My human logic and reasoning caused my heart to harden and with this doubtful heart, I reluctantly made my way to the retreat.

At the retreat, fellow QPEMers John Pak, Jefferey Pyo, and I were put in charge of coming up with games and activities to bolster the bonds between these college students during the fellowship portion. While we had concocted up several intense, competitive, and super-awesome activities for the second day, the first night was reserved for more laid-back, introductory ice breaker activities, such as the "M&M" game. To briefly describe the "M&M" game, each person picks out three M&Ms of various colors and for each M&M they must stand





group discussions. He showed us that love brings about a joyful noise as we delighted in praising the Lord through song and music. Most of all, Jesus reminded us why we are called to love one another through His messages in 1 Corinthians 24-26:

“But God has put the body together, giving greater honor to the parts that lacked it,²⁵ so that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its parts should have equal concern for each other.²⁶ If one part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rejoices with it.”



"Destiny's Children"

Pastor Brian Min

The theme of the 2015 QPEM College/Young Adult Ski Retreat was “Destiny’s Children.” We went through various passages in 1 Corinthian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church in our life and walk with God. Many times as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s, we hold disappointments, scars, and regrets from the church. With this disillusionment,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 Christians oftentimes discarded the church. Our reason for going through the book of 1 Corinthians was because Paul was working with a church that in our eyes fails to be the church. Yet, we also see Paul’s unwavering love and commitment to the Corinthian church.

In 1 Corinthians we see that the Corinthian church is a church divided. In the first chapter we see that people are bickering over who they were baptized by, we see that members within the church taking their disputes to court, and we even see richer members of the church excluding the poore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during the Lord’s Supper. Paul reprimands the Corinthian church





for failing to obey the calling Christ has over the church. Paul reminds these Christians tha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As such, these divisions are harmful not just to the church's testimony, but even to the spiritual walk of the individual believer.

The Apostle Paul reminds the Corinthian church that we have all been purchased by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The Apostle Paul reminds us that even though the church may not look perfect or holy that the church ultimately has a destiny that Christ will fulfill. The message of the retreat had to do with the fact that if we choose to discard the church, we will not taste the inheritance or the identity we have in God as destiny's children because Christ empowers the church and empowers each part of the body to function for His glory. Christ empowers each body part to support the other parts. Though the church may have its blemishes, Christ's empowering of the church is real. The call of this retreat was for each member in the body of Christ to make this blessing their own.



The 2015 QPEM College/Young Adult Ski retreat brought many students who were away from church either due to their academic situation or because of the choices they made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The 2015 QPEM College/Young Adult Ski retrea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se students who have been away to be plugged into our QPEM College/Young Adult family. Many students built lasting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the QPEM College/Young Adult Ministry has begun tasting the first fruits of this retreat.

Many students that have previously held frustrations or disappointments with the church have begun attending church again. Through this retreat, these students have claimed their identity and inheritance as destiny's children. Because of this, many of these student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our weekly Friday night gatherings.

We have seen more members staying accountable to each other in their respective college and young adult small groups. Furthermore, our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ies have been practicing hospitality to newcomers. Because of this, many new students have joined QPEM. In fact, QPEM has now begun sending vans out to the campuses of Stony Brook University and the Pratt Institute. This is QPEM's first time having campus pick-ups and drop-offs in almost ten years. We are welcoming in new college students to the ministry every week. The Lord has been maturing our QPEM College/Young Adult ministry and my hope is that as a church that we would continue praying for the maturation and the growth of our College/Young Adult Ministry. We are sincerely grateful for the support from our Pastors and Elders. Thank you for your prayers for our College ministry!





전도폭발부



교회는 구조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그리도의 영생으로
구조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의 복으로 가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넘어서야할 장애물임을 또한 믿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훈련을 받기 위한 모든 이들에게
퀸즈장로교회 전도폭발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3월과 9월 개강, 각 학기 13주

퀸즈장로교회 전도폭발 훈련 50기 돌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50기 부터는 전도폭발훈련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등 3개국어로 진행 됩니다.

문의 : 최원일 집사(917)683-5478





안진우 집사

마음을 미루지 마세요

하루 평균 근무시간 9.5시간, 출퇴근 왕복 2시간, 식사 및 샤워 2시간, 수면 8시간... 이를 모두 합하면 21.5시간... 주 5일만 일을 하는 신의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을 하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모든 개인 일을 접어두고 30년을 간다면 812일, 즉 2년 3개월 남짓...

과연 이 내용은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30년 뒤 결혼해서 분가를 한다면 이 2년 3개월 남짓이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하루 종일 함께 있다 해도 7년 남짓. 이것은 그나마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버타임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TV도 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다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한국인의 경우 9개월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짧은데...

매년 초에 우리는 영아부에서 서약식을 합니다. 이번 1년 동안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 하겠다는걸 서약하는 겁니다. 사실 서약을 하지 않고 실행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나, 작심삼일에 작심삼매 현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자꾸 잊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약을 해서 마음을 다집니다. 저 역시 언젠가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건 까맣게 잊고 이미 학부모가 되어 애들을 나무라고, 가정 예배는 피곤하다는 핑계와 함께 미뤄지고, 마침내는 문 옆에 붙어있는 서약서를 보며 반성을 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네요. 위에 언급했듯 인생을 통 털어서도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같이 놀아주거나 즐거운 시간을 갖게 아니고, 소리치고 야단치는 저를 보면 도대체 서약을 왜 했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되었을 때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던 유흥가와 식당가가 유명도시처럼 한가해 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갑자기 아이들과 이별을 할 지 모른다는 슬픔에,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지내야겠다는 무언의 자발적 캠페인 이었습니다. 그동안 멧쩍어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아빠, 엄마도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가족과의 시간은 다시 짧아졌습니다. 가족은 너무나 익숙해서 등한시 되어도 마음의 빛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New Year Resolution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No Procrastination, 즉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멧쩍어서, 당연하니까 등등 여러 이유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오늘 못했으니 내일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마음을 미룹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일도 하지 못하고 미루다 적당히 내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미루지 말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또다시 서약 내용을 보며 반성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내 기분대로 야단친 건 아닌지, 애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만 예뻐한 건 아닌지, 가족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적당히 미루는 건 아닌지... 서약식 할 때로 되돌아가서 다시 맘을 가다듬고 기도를 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 달라고...





이애령 교사

유아부를 섬기면서

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애령입니다. 우선 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주시고 유아부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전 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미국에 가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좋은 교회도 많지만 이단 교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동부개혁신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가정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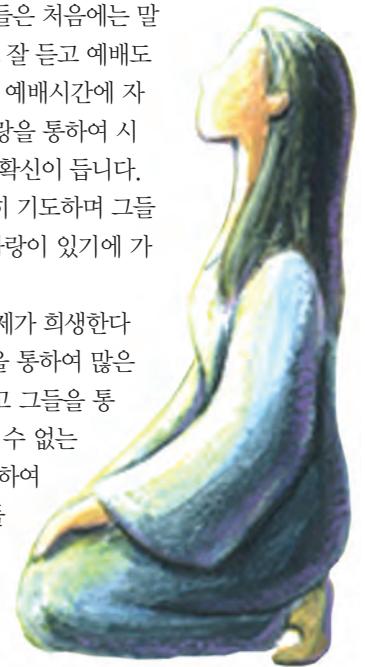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유아부를 섬기게 되었고 유아부를 섬기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과연 유아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쭙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기쁨이 저의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처음 유아부에 들어가서 아무 경험도 없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를 강지영 전도사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맞이해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처음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 이주, 삼주...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저한테 안길 때 마다 말 할 수 없는 행복이 마음에서 솟아났으며 그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만 알았는데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가 보기에도 기특하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신앙을 돌이켜 보았고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더 많았으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자신을 신뢰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함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아부를 섬기고 아이들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그들의 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삶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과연 저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저의 생각과 저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김성국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줄 뿐만아니라 그들에게 주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줘야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어른들만 느끼는 줄만 알았는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아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차츰차츰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린 것을 본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비록 아직도 예배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예배시간에 말씀을 잘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유아부 선생님들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 유아부에 들어갔을 때는 봉사라고만 생각하고 제가 희생한다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 희생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아이들을 통하여 교사의 자격과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저를 유아부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을 아이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조승희 교사

장막터를 넓히는 교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섬긴지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유치부가 친절처럼 너무 편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교사로서 처음에 있던 흥분된 마음과 떨림보다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예배, 너무나 익숙한 찬양, 익숙한 공과로 유치부를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공과교재도 대충 한번 훑어보며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싶으면 몇 분만에 다 읽고 공과준비를 끝냈습니다. 찬양도 아이들과 신나게 한번 부르고 나면 찬양 속에 나의 만족감으로 가득 차는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하였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처음의 나의 고백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올해 제직수련회와 교사 헌신예배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날 주신 김성국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주려 기진한 아이들(예레미야 애가 2:11-19)' '네 장막터를 넓혀라!(이사야 54:2-3)' '이제는 아이들의 변화만을 요구하지 말고 교사된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교사가 먼저 말씀으로 감격하여 더 넓은 하나님의 킹덤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교사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며 함께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 가는 교사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 자신이 먼저 이 시대에 준비된 교사인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로 늘 말씀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제 삶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중보기도로 제 모습이 낮아지고 맡겨진 아이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아이들의 가슴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냥 지나치며 보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그저 천진난만한 4-5세의 어린 아이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시간에 주저하지 않고 목청을 높여 찬양하는 미래의 찬양가들, 자신만만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울동하는 미래의 예능인들, 못 할 거라 생각했던 긴 말씀을 척척 외우는 미래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미래의 예술가들... 어찌 보면 어리고 영성해 보이는 어린아이 모습 같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뿌려두신 재능이 있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술이든, 게임이든, 스포츠든, 교육이든, 의료든, 어떤 분야이든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이제는 나의 비관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비전을 심어줘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유치부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주하던 교사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장막터를 넓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맡겨주신 유치부 아이들, 여러 교육부 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다지며 기본에 충실한 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나라의 교육은 퍼즐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교사 한분 한분과 함께 맞춰가며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큰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킹덤을 바라보며 유치부 교사로 일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유치부 교사님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것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장 김동성 집사

한걸음 한걸음

얼마 전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약 900 여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Flash Mop을 한다면 모여 극장에 들어가 총을 쏘며 기물을 파괴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날 사건은 사전에 이미 모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은 악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년부 부장으로 있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으며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우리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타주의 대학교에 입학해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되면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약 80%가 그렇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하지만 교사와 부모들은 여전히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무엇인가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 교사헌신예배에서 목사님께서서는 주일학교에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주일학교 교육을 벗어나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이끄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쌓아 왔던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그로인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끄는 세계관을 우리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아이들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 위안이 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크리스천 청년의 약 84%가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사실로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믿음생활을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유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따라 열심히 찬양하는 아이들, 전도사님의 말씀에 맑은 두 눈을 깜박이며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 뒤에 멧쩍게 앉아 있는 남자 아이들 까지도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준성 교사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장엄한 위엄과 사랑 가득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이해 주실까요? 주님의 얼굴을 감히 올려다보기도 감당치 못할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보았던 주님의 뒷모습이라도, 혹은 잡아주시는 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몸이 편치 않고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치유 받고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편찮으시고 당뇨와 저혈당이 있으셨으며 위암으로 돌아가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제게 의지하시며 제 손을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시곤 하셨고 다리가 아프셔서 줄 곧 걷다가 주저앉으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일 시절 그 분께 포대기에 감싸여서 업혀 자던 것, 심지어 그 넓은 등도 아직 기억에 선한 데, 연로하시고 많이 약해지셔서 걸을 때마다 괴로워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 소천 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원망스럽고 슬프던지 아직도 그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아련하고 그립습니다. 병실에서 며칠 동안 깨지 않으시는 분과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심장박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왜 데려 가십니까 하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차마 그렇게 사랑하는 제 할머니께서 떠나가시는 순간에도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굳은살로 뒤 덮여 있는 발에만 손을 얹어놓을 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천국을 상상해보았지만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았고 처음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그 곳에서만큼은 마음껏 걸어 다니시고 슬픔과 고통 없이 편안히 계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원했습니다.

할머님 장례식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불러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머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베푸시고 사랑해주셨기에 할머님께서 어디에 가시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요함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할머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영원한 주의 계획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사랑을 통하여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

며 다시 한 번 기필코 사랑하는 이들과 하늘나라 꼭 가야겠다고 다짐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진실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어디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단 한번만이라도 칭찬 받기를 원하며 눈물로써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거운 죄 대신 짊어지시고자 고통스럽게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아낌없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께로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일편단심 할머니의 사랑처럼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이 아이들을 사랑으로써 인도하는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거이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계획안에 귀한 하나님 자녀들로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 문이 열리면 모두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따스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느끼며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죄 사함 받고,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마침내 그 어디든 아이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만 있길 바랍니다.





차평화 전도사

One Mind, One Heart, One Body: Living in Unity Beyond Winter Retreat

“Back to the Basics” is the theme for the 초등부 ministry in 2015. With that in mind, we went to our Winter Retreat entitled “The Light”, hoping to reaffirm our love for Jesus Christ. We expected God to be present and to move in our midst, but He superseded our expectations: He brought our children back to Him and drew us closer with one another.

Throughout the entire retreat, it was apparent that God was working something special in our midst. During our worship service, we saw our children sing praise and pray freely without the judgment of those around them. Children who did not clap their hands or move their lips during Sunday praise were suddenly moving left and right, raising their arms and voices to the heavens. During our times of prayer, we saw many of our children break down in tears, as they recommitted themselves unto Christ. We were able to interact with our children during prayer time, and it was in the midst of these moments that they were able to open up and share thoughts and burdens that lay in the deepest parts of their hearts.

It was the sermons that brought the greatest blessing over our children and even over our teachers. Our guest speaker, Danni 전도사님, brought five messages that called our children to remember the covenant God has made with us, to turn from our sin, and to commit ourselves to God, to the church, and to the world.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in children’s ministry, Danni 전도사님 was able to speak with authority and with

gentleness, a way that best suited the needs of our children.

Time flew by very quickly, but short as this retreat was, unity and intimacy were well fostered. With 31 students and 19 staff members, there was a lot of one-on-one interaction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as well as intimacy within the small groups. Our teachers were simply amazing in not only telling our students what to do, but listening to our children and helping them work through questions that they had. Our children could tell that something real and deep was happening at our retreat. They were hungry, and the Lord fed them through the Word and through their fellowship.

My biggest blessing as a pastor was to see our children and our teachers re-identify themselves with the 초등부 ministry, KAPCQ, and the larger body of Christ. Through this retreat, our children and staff members grew closer to God and to one another. During this retreat, the image of a mother bear protecting her cubs kept flashing in my mind. This retreat really reminded our staff of what serving is all about — loving and discipling our children — and it really showed our children that the church is here to protect them and to guide them in their growth in life.

One of our children shared that his greatest hope for this retreat was that his friends would really meet God at the retreat. Our prayer going forward is that we would grow men and women of Christ who have likeminded hearts for thei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We know that a fire is useless if it lasts just a moment, and so our hope and





Ryan Kim 김재원

Warm Memories and Deep Reflection :

2014년 중등부 겨울 수련회



prayer is that the fire that has been ignited in our children would not cease along with the end of the winter retreat. Through prayer, encouragement, and careful planning, we trust and hope that this momentum will foster a body that functions just like the body of Christ found in Acts 2:42-47. May Christ build his kingdom in and through this ministry, and may He open up heaven's gates and shower his grace and mercy unto us.



This retreat has been an influential experience for me. I have learned many things that add to my knowledge about God's greatness. Overall, this retreat was heartwarming and a unique memory that I will always cherish. I especially liked Pastor Charles' sermons because he always made me ponder upon a topic and he preached the Word of God in a way that I enjoyed. His sermons always included inspiring messages that reminded us that Jesus is our Savior and that He saved us from the darkness of sin's grasp. In addition, I enjoyed participating in activities that the teachers prepared for the students, one of which was the making and presentation of a skit. My group this year was so cooperative and all genuinely kind and good-hearted followers of God. I am extremely thankful to have met and experienced God's strong words with these people. I feel that the many things I learned here at retreat will ultimately help me exponentially later in life. I want to always remember that Jesus is our Savior and that we will soon live in the light with Jesus Christ.

I want to try to always remember that God does everything for a purpose. I will continue to attend church and be a devoted follower of God. I loved the retreat, and I thank God that He led me to this great experience.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큰 영향력을 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수련회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따뜻함과 특별한 추억으로 저에게 항상 간직될 것입니다. 찰스 전도사님의 설교말씀은 제목위에 심오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액티비티시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과 연극을 준비하기위해 만들어 참여할 것이 좋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어둠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번년도에 저희 그룹은 모두 친절하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삶에 큰 변화와 제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빛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수련회 후에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수련회에 올수 있도록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Hannah Jeong 정예영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ing in God's Family:

2014년 중등부 겨울 수련회

Over the three days spent at the Junior High Winter Retreat, I was very inspired by the many things I learned from Pastor Charles Kim. I learned that God does not see you from your sins or experiences, and that God sends us "real nourishment" through Jesus to save us from "sucking on the pacifier" of the world, which would never truly satisfy our needs. I am very thankful for being able to listen to Pastor Charles' sermons, which filled up my stomach that craved God's Word.

I am also grateful for the wonderful children of God that surround me. I was able to meet new friends that I will always care about dearly. Most of all, I am, and will always be, thankful to have been a part of this retreat and for being a part of this church. I will try my best to apply God's Word to my everyday life and to follow the commandments that He created for us to follow. This will help me become more of the Christian that God wants me to be. I will also read the Bible and participate in Quiet Time. Another thing I would like to do, although I used to feel timid about doing so, is to break out of my shell and try to evangelize. I will spread God's Word and be a messenger of God. I will do so because God loves me, and I will use my entire life serving Him.

수련회 3 일 동안, 찰스 김 전도사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죄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아니한 것에 감사했으며 "젓꼭지를 빠는 것"과 같은 만족이나 필요보다 "참된 영양식"으로 구원하신 것에 감격했습니다. 찰스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말씀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함에 너무 감사합니다. 새 친구들도 사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항상 바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써 우리 수련회에 간 것이 제일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도록 만드신 계명을 최선을 다해 따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 후에, 숙면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의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못했던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견디고 힘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 삶을 드릴 것입니다.



Junie Kim 김준희

Church is Learning about God and Praising God with your Friends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A church can be a building where Christians worship God with each other, or it can be a place where you can meet your friends and be social with each other. But church is like the first level of going to Heaven, almost like different levels or tiers on the same ship. It is also the body of Christ, and Christ is the head.

You learn so many things at church that you didn't know about God, so much more than what you can figure out from your own critical thinking. The Bible tells stories of the people and events during ancient Israel and the time period when Jesus was on earth, and as you read the Bible alone you might understand only a few things. But in church, there are pastors who help your understanding of God become clearer, and once a pastor preaches the Word of God you have a better feel for the Scriptures. I always thought of God in simple terms – the one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made humans and animals. But I realized that He put more care while creating us. God knew who we were going to be even before we were in the womb. He knew that we were going to be His child in Christ. Genesis 1:27 states that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이며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천국은 마치 배에 들어간 것과도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동안 일어난 사건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더 재밌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봅니다. 누군가가 천국과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사람들과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더 가치 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대하여 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아셨으며 창세기 1:27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것보다



John Song

Cast Your Burdens on Me

I am a heinous, sinful, carnal being that deserves nothing short of the flames of Hell and God's great wrath. I actively and truthfully compare myself to the worst of all tax collectors or ungodly men of old. Despite the ugliness of my sins and my humanism, the Lord has displayed great mercy and graciousness by saving me. While on the subject of God's graciousness, I have been blessed by having being appointed lead coordinator and warden of this past Junior High Winter Retreat. Amidst all things, I can declare the goodness of God and that all things are done within His mighty providence.

Especially because I am the youngest teacher in this particular ministry, I was surprised to be appointed as a warden by Pastor Park. My initial thoughts were filled with much doubt, fear, and anxiety. But my greatest concern revolved around the idea of disappointment. As much as I worried about failing the staff, the thought of disappointing the students carried a far heavier burden since, after all, this retreat was not for the staff or the adults, but for the students. As the date of the retreat drew closer, my fears became heavier and louder. Internally, I was drowning in a pool of doubt and cowardice, but due to the goodness of God, the Lord whispered into my soul, "Cast your burdens on me, and take of my yoke for it is light and easy". As I drew closer to the Lord through prayer and reading the scripture, my deafening thoughts came to a standstill.

During the course of the retreat, the same obstacles that had stirred my spirit were once again reborn. Doubts were raised by my insecurities and my shortcomings as an inexperienced teacher. One thing that I have always struggled with was my organizational skills, or rather the lack of, and due to this deficiency, I deemed it fit impossible to maintain a body of fifty students. On the first day, I felt extremely stressed, but above all, I felt broken and useless as a result of my lack of control of both time, as well as the children. After some deliberate prayer time, the Lord once again stilled my heart and mind through my counterparts, the staff. They came to my aid by offering much needed help and in all honesty, without such support, I believe that finding stability would have been entirely fruitless.

As the retreat continued its course, I saw the Lord working, not only through my staff, but also through my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Their initial reaction towards

Church is not only a place where you can know more about God, but it is also a place for you to love and be loved by you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become closer to Him. In church, although you are mostly welcomed by many people and almost everybody loves you, it is possible that some people might not like you. Because it is God's house, you know that He loves you more than anything.

I had the wonderful opportunity to go to the Newsboys concert last November. It was the first concert I have ever been to, and it was such an adventurous experience because I got to have fun with my friends and I got to hear the beauty of music. As everybody yelled and screamed and sang, the atmosphere was full of excitement. I got to listen to so many new songs that I never heard, and I learned so many new things from the songs' lyrics. Each word from their songs made me realize something: that God is not dead but He is alive, and I am born again in Jesus. Everyone present at the concert was able to just scream for joy because the beautiful music expressed everything we felt.

On the bus ride home, I was so grateful to hear everyone gathered together and, filled with excitement, singing together. This concert was more than just an event where people get together and listen to songs – it was fellowship and worship with the people in the church. Church is the house where you are with your family and you will always be loved. It is a pathway to Heaven and to become a child of God. There, you realize who you are and what your future would be as a Christian. It is a place where you would never regret being in. I'm so thankful to be a part of such a place.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고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며, 사랑하며, 서로 다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자신을 어느 것보다 귀중하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여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같고, 항상 사랑할 것이며 천국의 길로 향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미래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당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받아드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달에 뉴스보이즈 콘서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찬양속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뉴스보이즈콘서트는 저의 첫 콘서트였으며 저에게는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버스 안에서 부터 찬양을 부르며 서로 찬미하며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모두와 저 또한 감격했습니다. 찬양의 아름다움을 친구들과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리를 크게 부르며 너무 흥미가 진진한 콘서트였습니다.

뉴스보이즈 콘서트는 대단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새 찬양들을 많이 들으며 찬양가사를 배웠습니다. 그 가사 속에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제가 거둬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찬양 안에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Emily Im

Keeping Balance During Change and Restoration

Several months ago, I was growing ambivalent towards our Senior High ministry and God. I guess it was because I was afraid of the direction in which we were heading: people were leaving by the boatload, and just when it seemed like things couldn't get any worse, Pastor Steve was called to serve our church in a different capacity. Personally, I felt abandoned, like there was no more hope for the Senior High Ministry.

Pastor Steve tried to assure us that the ministry was going to be passed down to good, capable hands -- the hands of a man who loved the Lord and had a passion for Senior High. But I was still uncertain if this would lead to any change for the better.

Slowly but surely, Senior High started to gain momentum and experience growth. Our Friday night gatherings (TGIF) began with almost nobody attending except for the praise team and Pastor Bae, but our numbers soon grew exponentially. Even non-Christians began coming to have fellowship with us, and some of them started joining our Sunday service.

My hope for the future of the Senior High ministry began to grow as I witnessed our members become closer with each other. As time went on, we all came to be very comfortable being around church that it seemed as though students went home only to sleep. We were all spending so much time together that the boundaries of age and grade difference between us started to disappear. And now that the Discipleship program has started, my hope is that we continuously grow closer not only as friends but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enior Pastor Kim once prayed for me and said that, "as a child learns to ride a bike, it is important that they keep their balance so that they do not fall." Because we are in such a good place now, the Devil will tempt us and try to break apart what we have been building with the Lord. And so, in order to continue moving forward and grow, we too should not fall and be discouraged, but rather continue striving for the bettering of our ministry and to keep yearning for God. This has become my prayer for the Senior High ministry. I'm thankful for the tireless efforts of Pastor Bae, the teachers, Deacon JB, Deacon Jung who stays at church really late to let the Senior High kids play longer, and the church as a whole for supporting the ministry and showing us the heart of God.



praise and prayer was of nonchalance and lukewarmness, but it soon became fiery with passion. For instance, normally, these children are restless without their phones, yet despite lacking this "necessity", they actively turned their bitterness into passion. They decided to seek God instead of acceptance from the world through their phones. To my sheer surprise, the general body became increasingly zealous in their praise. This, in my eyes, was a great victory. I dare to call this a great victory on the grounds that on any given day,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them from their phones, b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e body matured and understood their places and duties; to spend time with God, away from the rest of society, hence, the concept of retreat.

I sincerely hope and pray that both the parents and students of Junior High will not only continue to read the Word and pray, but also to strive for greater and higher things, just as God has commanded us. With my greatest sincerity, I can truly say that I have been incredibly blessed to have experienced both the grace and goodness of God in addition to observing the growth and maturity of these children,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조성윤 목사

4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들을 허락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

- 1) 우리 자녀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양성하는 일
- 2)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 하는 일
- 3) 중국예배를 통해 중국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과 소망과 기도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리더로 서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오, 주여 허락하소서!” 그런 가운데 이 세 번째 비전, 뉴욕에 사는 중국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딜레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중국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물질적 영적(기도) 후원을 넘어서서 대인관계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멀리서 바라만 보는 후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와 어울림을 요구 합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배려, 이해, 양보, 사랑, 등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민족과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

습니다. 바로 이런 딜레마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토(territory) 안으로 들어와 대인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어색함을 넘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불편함이 천국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딜레마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논쟁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 및 조언들을 적어 봅니다.

1. 우리 교회학교가 다른 민족의 자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 학교로 변해야 됩니다. 장년들과 달리 우리 자녀들은 그들(중국인들의 자녀)과 언어적인 벽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 양쪽 모두 미국에서 오래 생활 했다면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교회학교의 system과 운영방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가르치는 내용은 한결 같아야 하지만 가르치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에 변화를 주어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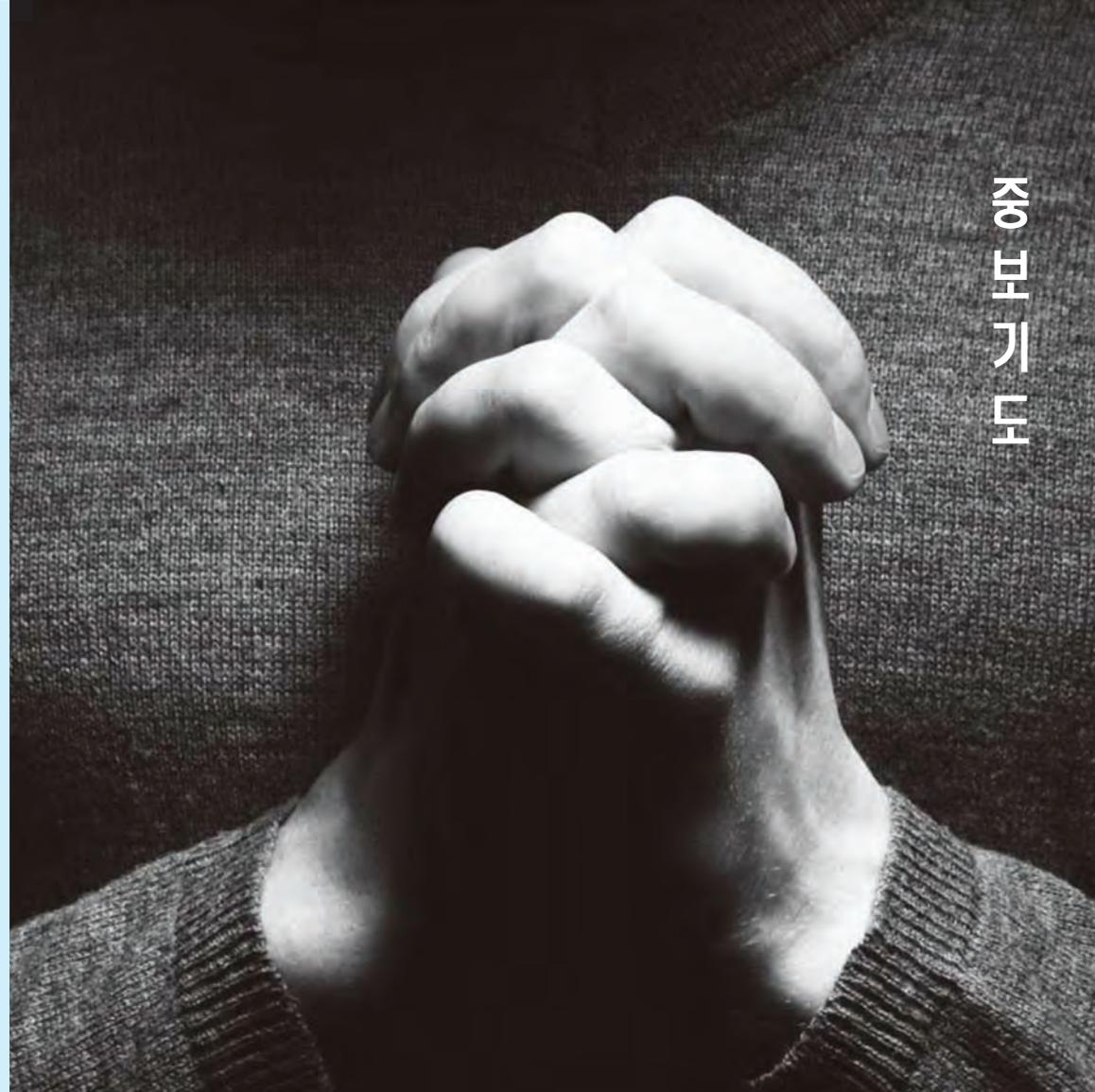
사실 이것은 다른 민족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인 2, 3 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한국적 정신을 교육하는 곳은 아닙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안 배워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도서에 의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3:1). 다만 교회학교가 그런 역할에서는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2. 다민족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첫 번째 비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리더로 서길 원한다면 다른 민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리더가 된다는 말은 즉 다민족의 리더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가진 타 민족인들을 절대 지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넓은 자녀들로 즉 타민족,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은 크리스천 리더로 양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로 세워지길 원한다면요.

3.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 1 세 분들 즉, 우리 교회 어른들이 타민족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고해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지나친 민족주의를 주장해 보이거나 인종차별의 말은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쉽게 흘러버리는 말일지라도 말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종차별은 세대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racism is generational). 타 민족에 대한 혐오감과 독설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집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란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집안에서부터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중국인들이나 타 민족인들을 낮게 여기는 말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습과 훈련이 또 다른 비전,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 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퀸즈장로교회



박새롬

2015년도 청년 연합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저 아가페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미국에 2012년도에 왔습니다. 대학 합격을 위해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드릴 때 저는 대학합격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해도 올바른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저의 삶이 참 무의미해질 것 같아 어찌 보면 대학보다도 교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마침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고 말씀도 들어보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즈장로교회를 알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다소 보수적이었지만 엄숙하고 경건했던 첫 예배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다음 주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대로 주님은 즈장로교회를 통하여 저를 많이 일깨워주시고 훈련 시켜주시고 또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청년부 수련회는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은혜였음을 생각해봅니다. 한 달 전, 저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참 힘들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전체 회계를 맡으면서 수련회 전부터 바빴었고 부끄럽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수련회 준비를 위한 새벽기도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러 무슨 배짱으로 수련회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저는 죄책감에 심하게 시달렸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조그만 죄부터 큰 죄까지, 죄를 짓기만 하면 회개하기가 두려웠고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주님이 얼마나 이런 나의 모습을 얼마나 역겨워하실까, 얼마나 증오하실 까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래,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이런 마음의 짐을 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죄책감에 평상시 생활에도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보시기 정말 자랑스러운 주님의 딸이 너무나 되고 싶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을 얻고 누구보다도 기도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지만 자꾸 무너지고 말뿐이고 실패하는 저의 모습에 참 좌절이 많이 뒀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지쳐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수련회는 사실 뭔가 기대감보다 그냥 내가 맡고 있는 회계 임무만 실수 없이 잘 해내자 라는 생각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첫째 날, 저녁집회가 끝나고 아무 은혜와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초조한 마음에 오인수 목사님과 박성권 전도사님에게 솔직하게 상담을 하고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 날 잠자리에 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련회 둘째 날 집회 때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이죠. 저에겐 마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씀하시길 “새롬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좀 쉬어라. 기대서 쉬어라. 난 너에게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는다. 이제 죄책감 다 내려놓고 이리 와서 쉬거라. 넌 충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할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인자 하심과 사랑하심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또한 난 정말 큰 착각을 했구나, 주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나는 증오와 실망과 좌절에 빠져 나 스스로 벽을 만들어 나를 가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탄의 계략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큰 착각으로 그분을 멀리했는지 정말이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한 가지 더 다짐한 건,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자 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이신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인데 정말 어정쩡하게 기도하며 말기지 말고 정말 화끈하게 한번 맡겨보자, 기도하자 라고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유학생 신분인데 이번엔 OPT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Baruch College 가을 학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도 구해야 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과 초조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테지만 OPT신청이 늦어져도, 남들은 지금 늦는다고 빨리 구하라고 해도, 불안한 생각이 아예 안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하며 그분께 맡겼더니 좋은 자리를 갑자기 덜컥 주셔서 맨해튼에 있는 회계사무소에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산다는 게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어찌 두렵겠습니까? 설령 나의 뜻처럼 되지 아니 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알아서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니 두렵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기. 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청년부에 더욱이 힘써 봉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동훈

깨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며 전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청년입니다. 1월 28일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때 청년들이 다 같이 부른 찬양은 Wake라는 곡인데,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가장 뜨거웠던 곡이고, 감사 목사님께서 이 노래의 매력에 빠지셔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들과 딸하고 같이 춤추며 찬양 했다고 하신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캠프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막상 기쁜 마음으로 맡았지만, 그 마음과는 다르게, 연말 행사들과 겹치면서 준비가 늦게 되었고, '쉽지 않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못 간다는 것을 알고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나만 열심을 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리더들에게 화도 내구요. 우리 교회를 10년도 넘게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자야 하는데 잠은 안 오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때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동훈이 맡았는데 잘 해야지' 하는 교만함에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회개를 하였고,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Wake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어 주셨고, 그 순간에, 나의 교만했던 부분이 발견되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기도에 온 힘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맨해튼에서, 뉴저지에서 새벽마다 건너와 함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며 캠프파이어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의 눈에는 불을 머금은 체험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더라고요. 답사 때 보니 캠프파이어 장소도 생각한 것 보다 열악하였고, 청년들의 캠프파이어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고요. 그 때 하나님께서 지난 엘리야 공연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번제로 삶을 드리는 것, 십자가와 소명을 생각하며,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

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회장에 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대로 말씀과 은혜의 잔치가 열렸고, 드디어 둘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뉴저지에서만 400건의 사고가 났던 그 날 바로 다음 날이니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한 캠프파이어 장소가 비로 침수되어서 수련회장 측에서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뼘도 넘게 물과 얼음이 가득차 있어서 도저히 진행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황할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담대해 지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였고, 캠프파이어면 몰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수 없이 가본 장소지만, 숨겨지고 버려진 듯 한 느낌이 들어서 아무도 단 한 번도 안 가봤던 그곳, 언덕 아래 있는 야외 예배당을 보여 주신 겁니다. 이름도 야외 예배당입니다. 흥분해서 외부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어서 그 곳에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땅이 말라 있더라고요. 원래 장소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사이즈도 작았는데 그와는 다르게, 이곳은 제대로 된 예배당이라 수백 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원형극장 형식이라 소리 내기도 편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높은 숲이 있어서 따뜻하기 까지 하더라고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 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드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썼고, 십자가에 한명한명 직접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번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내 온 삶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를 볼 지언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쓴 저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 같이 뛰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찬양에 백인, 흑인, 그리고 동양인이 섞인 그 무리는 같이 뛰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퀸즈장로교회는 4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전진해 온 우리교회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부른 Wake의 가사처럼 깨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며 전진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입니다!

할렐루야!





이숙규

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안녕하세요? 청년3부 이숙규입니다. 먼저 주님이 세우신 우리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들, 좋은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장영춘 원로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는 어떤 것이라도 우연이 하나도 없음을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한 저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이전에 하나님 사랑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그 사랑 회복을 위해 저를 이곳 뉴욕 땅으로 보내시고 한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생활들 가운데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던 그 가운데서도 제 안에 감사함이 없었던 모습들을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감사하도록 바꾸셨던 것들을 돌아볼 때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중 예전 한국에서 했던 신학공부, 미국 오고 나서 주변의 권유에도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던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 저는 그 길을 다시 가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신학교를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의 부족했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꼭 필요한 훈련들을 하게 하심으로 어릴 때 제게 있었던 열등감과 낮았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와 똑같은 어린 시절,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나고 있는 이 청년 시기,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음

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를 겪어오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퀸즈장로교회 말씀 훈련을 통해 다시 한 번 신앙을 점검하며 매순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꿈은 비록 달랐을지라도 지금도 저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다시 한 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곳이 우리 퀸즈장로교회, 또 제가 속한 청년부에서 또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르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 이니라 (고후 12:7~10). 아멘!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염



명준모 집사

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대 부분의 환자들께서 가장 자주 겪는 질환은 위염입니다. 위염은 위암으로 발전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염의 원인부터, 증상, 예방방법과 치료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1. 위염이란 무엇인가?

염증이란 몸에 맞지 않는 다른 물질이나 균이 체내에 들어오거나 접촉할 때에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위염은 위 속에 맞지 않는 물질이 들어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위염은 급성위염(acute gastritis)과 만성위염(chronic gastritis)으로 분류 됩니다. 급성위염은 위에 염증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위염이라 합니다. 급성위염은 미란성 위염(erosive gastritis)과 출혈성 위염(hemorrhagic gastritis)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성위염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 화생성 위염(intestinal metaplasia)은 위 점막이 오랫동안 자극을 받아 원래 모습을 잃고 소장 점막이나 대장 점막 모양으로 변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주 듣는 신경성 위염이란 지금까지 말해온 위염과는 다릅니다. 일반인의 경우 속 쓰림이나 소

화불량(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심와부 통증 등의 증상을 위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실제 위염만 아니라, 위궤양 또 위암이 생겼을 때도 생길수 있지만, 위 내시경 상에는 아무 이상을 발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에 위궤양이나 식도염 등의 징후가 없는데 불구하고 소화불량 증상들이나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 dyspepsia) 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신경성 위염이라고 설명합니다.

신경성 위염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스트레스이고, 그 외에 우울함이나 긴장입니다. 이와 같은 자극은 자율 신경계를 자극해 위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성 위염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므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약물치료와, 식이요법(매운 음식과 짠 음식 피하고),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 생활(시간 맞추어 식사하기)과 적당한 운동 등을 통해 증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면 필요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권유합니다.

2. 위염의 원인은 무엇인가?

급성위염의 원인은 :

비스테로이드 진통제(아스피린), 소염제(Aleve, Naproxen, Advil, e.g.), 스테로이드 제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커피, 맵고 짠 음식

만성위염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자가면역질환, 담즙 역류 등.
이중 가장 중요하고 제일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균입니다.

3. 위염의 증상

위염의 증상으로는 다양합니다. 복통이나 명치부분(명치 밑 부분)의 통증 또는 상복부나 배꼽 주위를 중심으로 아프고 쓰린 증상, 메스 거움 과 구토, 체중감소, 장출혈, 토혈, 흑색변, 빈혈증상, 체한증상, 소화불량 및 식욕감퇴, 상복부 팽만감, 무증상.
하지만 앞에 말했던 것 같이 이러한 증상은 위염뿐만 아니라 위궤양, 위암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만 가지고 위염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염이라고 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장 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한 염증이 생겨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만성 위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상이 전혀 없어 위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위염인지도 모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위염 예방방법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려면 지나친 음주, 흡연, 커피 등을 멀리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밤늦게 과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맵고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은 피해야 하고 진통 소염제 남용 등은 교정해야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에도 위염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5. 위염 치료방법

위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Proton Pump Inhibitor (e.g., Nexium, omeprazole, Prevacid, Dexilant 등) 등 위산분비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위산분비억제제는 위산자체의 분비를 억제하여 위 내의 산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염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10일~14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에서 화생성 위염으로 진행할수록 위암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부터 위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화생성 위염일 경우 반드시 매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셔서 위암 등 다른 질환의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출혈, 통증에 대한 조절과 함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지만, 만성 위염의 경우,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화생성 위염의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더라도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욱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영적 특효약, 용서

최근에 나는 몸이 아프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가 그렇게 비참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겪은 불쾌한 언행들을 시시콜콜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가끔씩 살의가 가득한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그를 보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 미국의 천재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멋진 말을 했다. “용서는 제비꽃이 자신을 밟는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 용서하지 않으면 다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닌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해나 모어(Hannah More)는 이렇게 말했다. “ 그리스도인은 원한보다 용서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용서

하면 분노의 비용, 증오의 대가, 심령의 낭비가 절약된다.”
 오늘부터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기 시작하라.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깨끗케 하고 사랑으로 채워 달라고 기도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나 모욕을 주더라도 마음으로 즉시 용서하라. 하나님께 너그러운 태도를 달라고 기도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라. 증오는 불행과 속박을 주지만 용서는 자유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님이 날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당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삶의 기류가 달라질 것이다.
 「고난의 삶에 소망을 말하다」/ 워렌 위어스 비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가족의 구원사를

새롭게 쓰고 계시는 그 분을 신뢰합니다....



명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Reprocessing Machine
최신살균세척기



Procedure Room
내시경 검사실



Exam Room
진·료·실



Recovery Room
회·복·실



Consult Room
상·담·실



Waiting Room
대·기·실

명준모 위장내과에서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시설을 모두 완비!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간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